

새 世代의 가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가정과

주 정 일

1. 과거의 가정과 앞으로의 가정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과거의 가족 생활의 이념을 도리켜 보건대 그것은 즉 조상을 받들고 전통을 지키며 자녀를 낳아서 家系를 계승시키는 것을 그의 지상목표로 하여 왔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관혼상제를 때로는 지나치게 중요시 하며 위에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던 일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형식적 제사를 받들기 위한 양자 제도의 발달, 장자의 편중상속·조혼 및 강제결혼의 유행·자식을 낳기 위한 축첩·자식 없는 여자에 대한 냉대 대가족제도로 말미암은 부녀자의 예속적(隸屬的) 생활·가장권의 편중 기타 등으로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글 쓴 이

일이 얼마든지 요구되고 감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문명 특히 민주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점차로 가정에 있어서의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의 발휘라든지 또는 가족간의 애정적

유대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소의 주목을 받게 되어 왔다. 이러한 사조는 자연히 대가족 제도의 붕괴, 一夫二婦制의 법적보호·결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존중·女權의 일반적 신장,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관의 향상 기타 등의 부산물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는 지금 과거를 회고하며 시대적인 요구에 호응하여 앞으로 우리 새 세대의 가정이 지녀야 할 새로운 생활이념을 확립하고 가족생활의 향상을 물심 양면으로 이룩할 필요성을 느

기는 바이다. 그 이념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반영되어야 할 제면(諸面)을 여기서 차례로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새 世代의 배우자 선택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일생의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사실은 설명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서 치중하고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① 가정 배경과 교양: 옛 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班常을 가리는 의미에서도 가문등을 중요시하여 왔다. 오늘 날은 이미 이러한 관념이 많이 희박하여 졌으나 역시 집안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양반의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양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정교육의 우수성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돈을 잘 벌어도 가정교육이 부족한 사람은 교양이 모자라고 인간기가 적어서 좋은 가정인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특히 부모들의 사이가 어떠한었느냐 하는 점은 고려할만 한 점이다. 미국 학자들은 이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거니와 결국 부모들이 사이 좋게 지낸 가정의 자녀들은 그만큼 성품이 원만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꾸밀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불화한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한 인생을 지내는 고로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협력적으로 사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자연히 그러한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서 비교적 원만하게 살

아가는 것이다. 또 가문을 보는 때는 그 집안에 나쁜 유전이라도 없나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② 年齡과 成熟度

결혼 적령기라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신체적 정서적 성숙이 고루 된 후에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연령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신체적 성숙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좀 조숙하기는 하나 대개 스무살 후에는 완료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부로서의 또 장차 생길 어린이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남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고로 대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군문에도 종사한 뒤 직업이라도 하나 가져야 비로소 적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야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러고 어서 손자 보고 싶은 욕심에 좀 서두르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또 과거의 가정들이 빚어낸 비극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인생관이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의 결혼은 상호적응도 힘들고 조혼은 결렬 될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여자는 대개 남자보다 조숙하고 또 먼저 늙는 것이 보통이니까 남녀 연령차이는 남자 2·3년 내지 5·6년 많은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직업과 경제

직업은 돈을 벌어 드리는 수단이기도 하

지만 때로는 그 이름도 중요하다. 즉 도독질이나 술장수를 통한 부자라면 그다지 매력이 없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본인이 만족하고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갈만한 것이면 좋겠는데 역시 당사자끼리 서로 이해하고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또 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양자간에 지나친 차이가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 적응하기 힘들 것이니 이점도 고려할 점의 하나다.

④ 성격과 습관

성격은 일반적으로 유순하고 친절하고 타협적인 사람이 좋은 배우자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서로 맞아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유할 때는 서로 보충하여 잘 어울려 사는 수도 있다. 단 한 두 가지 피할 것은 이기적이고 고집 센 사람과 잔소리 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과의 생활은 도저히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습관은 도저히 두 사람이 같기를 바라기 어려우나 주관적으로 적어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무방하겠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을 때 강제로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는 실패로 그칠 경우가 많다.

⑤ 人生觀・愛情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항로는 아니다. 거센 파도와 수 많은 암초를 헤치며 일생을 같이 항해할 사람이 배우자 일진댄 적어도 두 사람의 항로의 목표만은 같아야 같이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노를 짓는 힘의 원천이 되어 줄 것이 즉 애정이다. 샘 솟는 듯한 사람의 감정 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의 기계적 운동에 그칠 뿐 거기에는 고통과 병노가 있을 뿐이지 기쁨과 희망은 바랄 수는 없다.

이상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만을 추려서 몇가지 고찰했는데 이 이외에도 건강·고향·외도·종교·취미·학벌 등등 고려 할 점이 많겠으나 지면 관계로 성략하고 다음에는 이상의 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타진해 보느냐 즉 교제나 중매의 말이나 하는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적어도 중류 이상의 계급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혼사를 보면 연애 결혼과 소개 결혼의 궁극의 차이점은 배우자를 당사자끼리 우연한 기회에 먼저 알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맞선 내지는 교제의 기회를 주었느냐 성도의 차이에 불과한 듯하다. 아무리 연애를 했을지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는 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또 아무리 부모들의 마음에 든 사위 감며누리 감이라 할 지라도 본인들끼리 싫다면 결혼시킬 수는 없을 정도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었으며 또 양면을 다 법이 보호해 주는 바 있다. 이른바 이러한 절충식 결혼 제도가 점차로 발전해 감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중매가 든든해도 본인끼리 잘 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교양과 성숙

의 도를 재고 인생관과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명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당한 교계를 통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만치 여유있는 시일을 가지고 심중을 기합이 좋을 듯 하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결혼생활이야 어차피 대해를 항해하는 모험이지만 그래도 동반자를 잘 알고 믿고 사랑하는 처지에서 떠난다면 우리네 조상들 보다는 훨씬 자신있고 가벼운 명랑한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3. 부부의 지위와 상호적응

몇 십년전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들에게 「삼종지덕」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왔고 “부창부수”의 이념이 찬양되어 왔다. 결혼한 부부는 1대1로서의 인격으로 보다는 여자가 남자에게 물심양면으로 예속되어 살아 온 것이 보통이었다. 가정의 여러가지 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도 남자 본위의 일이 너무나 많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일이 있어도 반항도 싸움도 못해 보고 그저 맹종의 미덕을 발휘했을 뿐이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큰 소리는 안 났을 지 모르고 피상적으로는 평화로웠을 지 모르나 과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각각 행복하였느냐는 별 문제다.

8·15해방은 우리 나라에 정치적 해방도 가져왔지만 동시에 여성 해방에도 적지 않은 계기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서쪽에서 불어 온 바람은 여성들의 귀 밑에서 이렇게 속사기어 주었다. 「자,

때는 왔다. 어서 그 등우리에서 빠져 나와 마음껏 활개치고 날라 보려마. 너도 하나의 인간이다. 인권이 있다.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남존여비”란 옛 말이다. 남녀는 동등이다. 자 어서……」하고 우리의 결혼관은 달라졌다.

남편에게 매여 살 각오를 하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력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상적 가정을 꾸며 보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여 협력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며 필요하면 돈도 벌어서 드리고 때로는 남편의 일을 대행하는 일도 있다. 의견이 충돌되면 싸우기도 하고 도저히 타협이 안 될 때는 이혼할 용의도 있다. 이혼한 뒤에 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야량도 있고 실력도 있다.

여자의 뱃장이 이쯤 되면 부부간의 관계는 예속이 아니라 1대1의 인격적 결합인 것이다. 두 사람의 유대를 강하게 하여 주는 것은 주종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협력인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 협력적 생활방법이야 말로 더욱 힘든 것이다.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바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고무하고 격려해야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잘만 육성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정신의 변모이며 우리가 바라는 새 세대의 부부관계라 하겠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을 지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해나가려면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때마다 각자의 배경의 차이가 나타나며, 서로 타협하여 해결지을 문제가 무한히 이어난다. 주로 돈·친구·취미·습관·종교·친척·자녀문제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며 결혼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씩 차례로 검토할 지면의 여유는 없으나 일반적인 부부싸움에 대해서 간단히 논해 보고자 한다.

어느 가정이고 특히 결혼후 1·2년의 적응기에 있는 동안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결혼 직후에는 서로 비위를 맞추고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던 것이, 차차로 서로간에 허물이 없어지면 개성이 나타나고 본성이 튀어 나오게 되니 여기서 충돌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살려고 할 때 거의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때때로 두사람은 로맨틱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면하고 자기의 지위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본심을 알게 되는 수도 있다. 물론 참을 성도 필요할 때가 많으나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면 그것은 어느 기회에고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참는 사람 자신의 정신 위생으로 보나 나중에 터졌을 때에 당하는 사람의 충격으로 보나 그다지 좋은 일이 못 된다.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는데 그 표현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

요한 문제가 된다. 즉 문제를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생각나는대로 아무 언사나 내뿜는다든지 특히 상대방의 자존심과 체면을 손상할 만한 욕지거리를 합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어린애 다운 미성숙한 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가 버러질 수도 있다. 그 보다는 문제 자체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구명하는 태도로 자기의 의견을 표명도 해 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도 보고 하는 태도는 좀 성인다운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항상 이와 같이 온화한 태도로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때로는 감정이 격화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극도에 달한 감정을 되도록 사람에게 직접 내 쏘지 않도록 수양을 쌓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 이불을 쓰고 잠으로써 곧 잘 화를 풀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남자라면 장작을 패드로써, 여자라면 빨래 방망이질을 몹시 하드로써 아니면 피아노를 마구 치므로써도 화를 푸는 수도 있다. 도는 산보를 한다든지 영화구경을 한다든지 동무네 집에 가서 실컷 하소연을 하고 난다든지 하면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도라 올 수도 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문제를 고찰하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일고해 볼만 한 아량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주로 결혼후 3·4년간의 적응시기에 더욱 많이 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그 후에는 많이 융화·적응되어서 웬

만한 일 가지고는 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하고 싶은 것은 바람 피우는 사람과 그를 다루는 배우자의 태도에 관해서 이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 본의 아닌 탈선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불만을 심하게 느끼는 나머지 불가피하게 옆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즉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간섭적인 아내에게 염증이 나서 자기의 독자성을 살피고져 집을 뛰어나가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도 냉담하고 쌀쌀하고 엄격한 아내에게 시달려 따뜻하고 포근한 다른 여자의 품을 찾는 남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이나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아내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 해지고 살림에 관해서는 한 마디의 의논의 상대도 못되 주는 남편의 아내는 지나치게 쓸쓸하고 고독한 나머지 화려한 세계 아니면 인정미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 따라서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을 경우에 아내가, 남편으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자기 반성일줄 안다. 바람을 피우기 전에 가끔 자기 반성을 하였던들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나, 하여간 사후에라도 반성은 필요하며 요구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자기에게 바라는 것중에서 자기가 해 채워주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써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적극 그 방향으로 노력 해 보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한편

으로는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하고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시키고 때로는 권유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또한 인내있게 기다리기도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것이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이야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질책하고 더구나 자식이나 제삼자 앞에서 고의적으로 망신시키고 하는 등의 일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하여 더욱 증오심과 반항심을 일으키게 할 뿐이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만일 건설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다 하였고 기다릴만치 기다려 보았거나, 상대방이 악질이라서 아주 포기하고 싶거나 할 때에는 이혼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녀들의 복리도 고려하여 상당히 심중을 기할 것이며 일시적 감정에 사로 잡혀서 후일 후회 할 만한 파오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4. 가족 제도 고찰

가족제도란 본래 가족끼리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가족들의 행동을 규정지어 주는 사회적 제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가족제도도 또한 자연히 달라지게 되며 원시사회부터 오늘날까지에는 많은 변천과정을 밟아 온 셈이다. 여기서 는 지면상 우리 나라 근세의 변천과정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이조말엽까지도 엄연하게 지속되었던 대가족제도와 가장권은 일제의 침략이래 또

는 8·15해방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차차 붕괴의 과정을 밟아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 본위의 개별 가족형태가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구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가족제도의 유물적관습을 허다하게 보기는 하나, 역시 가족제도는 어떠한 사회적 필연성에 의하여 분해과정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 듯 하다.

그 필요성이란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국권의 확대로 말미암은 가족권의 상실·두째로는 상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은 개인본위직업의 분화, 그리고 세째로 민주주의 사상의 진보와 그에 따르는 부녀자들의 해방등이라 할 수 있다.

서구문명이 도입됨에 따라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 보급되었으며 특히 부녀자들의 지위나 권리가 겉으로는 법률적으로 안으로는 교육을 통한 지적향상으로 현저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남편의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음을 지상의 과업으로 하던 것이 점차 여자도 하나의 독립된 부부로서 떳떳하게 한 새 가정을 관리해 나갈 권리가 부여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개별 가족제도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것이다.

개별가족은 원칙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그 사이에 출생하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로 그 성원수가 비교적 적고 가족간의 관계는 법이나 의리로 서가 아니라 솟아 나는 애정이 유대가 되어 결합된 생활공동체이니만치 그 안에서 각자는 비교적 마음 편하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개성과 인권을 존중 받으며

가정과 교과서

조기홍 현병진 공저
권청자 안병용

즐거운 가정생활

장명옥 김영옥 공저
현기순 조백현

새로운 가정생활

이홍수 유희경 공저
박종환 윤인섭

모범 가정생활

표경조 주월영 박유분
김종순 이금례 공저

이상적인 가정생활

생활할 수 있다. 주부는 독창적으로 가사를 관리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기구와 문명을 받아 드려가며 생활의 간소화를 꾀 할 수 있다. 아니 주부가 가사의 노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의 간소화가 절대 요구된다. 이리하여 절약 된 시간에는 자기 취미를 살리고 오락도 취하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인간다운 자주적인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개별가족제도가 내포하는 하나의 난점이 있다면 노인봉양이 문제라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찌까지나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이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감정과 의사를 존중히 하며 특히 고령하게 되신 후에는 가까이 시종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줄 안다. 노인들은 옛날과 같이 머누리만 보면 은퇴하고 자식덕에 살어 보려는 의퇴심을 버리고 적어도 중년기는 자기들 힘 자라는데까지 독립적으로 살아 가므로써 젊은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해 주다가 정말 노후에 의지가 필요할 때에는 자식에게 의존하여 사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저축하고 한편 취미생활도 발전시켜가는 태도를 지녀야 하겠다.

5. 자녀 문제

자녀의 출생은 결혼의 유대를 더욱 強韌하게 하여 주며 부모된 사람으로 하여금 생의 의의를 느끼게 하여 준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樂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운 것 없이 무조건 줄 수 있는 반면에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한 기대도 크다. 신체도 남보다 건강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남보다 잘 하고 무슨 특기라도 있어서 대중앞에 갈채도 받고 이름 있는 좋은 학교들을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을 갖게 되며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물론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을 세워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함은 좋은 일이나, 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우리는 자식의 소질을 과대평가하고 실력이 상의 성과를 기대 내지 강요하는 부모들을 본다. 또 부모의 말이라면 소금섬을 물로 글라 해도 들을 만큼 복종하기를 원하고 부모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린

이 자신의 건전한 발달에는 별로 도움도 안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등을 시키므로 서로 남의 앞의 치레를 중요시하는 부모들도 허다함을 우리는 안다.

새 세대의 민주적 가정에서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개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 다른 체질·무능·기질·재조 등을 타고 이 세상에 나오는데 자기 자식에게 잠재해 있는 능력과 소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며 그것이 최대한의 발달을 할 수 있겠음 환경과 기회를 조절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므로써 어린이를 위협하고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자신을 잃게 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발달과정과 양상(樣相)을 연구하고 어린이의 심적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여 환경의 조건등을 가감해 줌은 새세대의 현명한 부모로서 지녀야 할 교양인 줄 안다.

한편 어린이들의 독립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스스로 하겠음 장려하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자기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며 절약하는 습관등을 길러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집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부모들의 생각대로 만 하지 말고 때로 아이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하면은 아이들은 집안 일에 협력하려는 태도와 자기가 책임 맡은 일은 꼭 하려고 하는 기질이 발달 할 것이니 여기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가정의 싹은 틀 것이다.